

Jean Kim's 2021 SPRING NEWLETTER HOPE IN COLOR PURPLE FUND



Spring view at Brookdale Arbor Place. Jean Kim's Home for the past 3 years

Jean Kim's Last Newsletter

My dear family and friends:

I have been under hospice care for 6 months. The hospice doctor, a nurse and I assessed my condition. We seemed to agree that my time is coming closer. Hospice qualified to renew further care for me, and Brookdale Assisted Living allows me to have visitors any time.

I treasure your long-lasting love, steadfast support, and friendships all these decades. You were the oxygen that helped me to breath these many years. Some of you with God's help carried me on your back, or walked along, or ran the race with me by my side. I will treasure all those fond memories until I depart for my next permanent home where I will reside with Jesus. I will meet my family members, including my own son, and many hundreds of friends who went ahead of me. It will be sad to leave all of you behind but a joy to meet all of the others up there. With such mixture of joy and grief I am ready to depart this world. I also leave many mistakes, regrets, and heartaches behind and join Jesus with empty hands, empty hearts, joy to start a brand-new life in heaven. After this one, there will not be any more newsletters. Therefore, this is my goodbye letter to you all. ***So long until we meet again. BUT NO ONE KNOWS GOD'S TIME AND PLAN FOR ME!*** -Jean Kim, your longtime friend.

김진숙 목사의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여: 여러분과의 오랜 세월동안의 사랑과 변함없는 후원과 우정을 가슴에 보물로 간직합니다. 그 많은 세월동안 여러분은 나를 숨쉬게하는 산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은 나를 등에 업고 함께 걸어주시고 선한싸움을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 모든 추억을 가슴에 안고 우리주님이 계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내 아들을 포함해서 먼저가신 우리식구들과 수백명의 친구들을 만날것입니다. 여러분을 뒤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슬프지만 그간 그립던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 또한 클 것입니다. 이렇게 뒤섞인 슬픔과 기쁨 가운데 이끼로운 세상을 떠날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잘못, 후회, 애통을 뒤로하고 빈손으로, 빈마음으로, 새로운 생을 시작할 기대와 기쁨으로 주님께로 갑니다. 이 편지 후에 다른 뉴스레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편지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다시 만날 때까지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알 길이 없습니다.** 김진숙 목사드립니다.

**Quotes from the writing by Rev. Pat Simpson,
who was Jean Kim's successor of the Church of Mary Magdalene/
Mary's Place, Homeless family shelter and church, Seattle, Downtown.**

Dear Jean,

Looking back during my first year of retirement, I know serving Church of Mary Magdalene was the most important ministry work of my life. No contest. It was clearly the most useful to God's work of love and justice. It was also the most interesting -- and despite all the heartache -- the most fun. The women taught me so much, filling my too-white world with a rainbow of color, culture, theology, music, courage, laughter, compassion, and strength. All of that has stayed with me in the years since, enriching my life and my ministry.

So many people thought you were an impossible act to follow, that the women were so "imprinted" on you they would not accept another pastor. But you never made the church about you, you made it about them, and the community they could build together. They learned your lessons well, and it was enough to tide them over until they could trust me . . . and teach me how to be their pastor (which they did not hesitate to do).

The opportunity to do this work was a gift from God; I have never been so clear about the Holy Spirit's leading and making a way. And it was also a gift from you, as you held the door open. Then you did the next necessary thing -- stepping away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 needed space to make my own leadership style. But you also stayed close enough to be a listening ear and a source of encouragement.

For all of this, my love and thanks, Jean. More than words can say. Now I will start to think what I can learn from your example as a "retired" minister of the gospel. What I heard at your birthday zoom-party gives me plenty of inspiration. The calling never goes away, does it?

You are moving toward the end of your life with peace and grace, helping us be ready to let you go. (Someday I will learn from that, too.) May the love from all of us who know you join with God's love, to fill your days and nights -- even from a distance.

Your sister in Christ,

Rev. Pat Simpson, (PNWUMC) Pacific Northwest United Methodist Church

Quotes from a close friend in Korea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친척, 친지, 친구 여러분께 안부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면으로 생활이 뒤집힌 가운데 얼마나 수고스럽게 생활을 해 가시는지 보지않아도 과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같은 고생을 하고 사니까요. email 이 가능한분들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우선 제가 건강이 나빠서 한글로 번역을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이세상에서의 마지막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는게 어느날엔가 고통없이 예수님계신 천국고향에 깨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고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새날을 마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애틀에서 김진숙 목사드립니다.

답장: 사랑하는 Jean 목사님!!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의 모델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Jean 목사님을 소설처럼 뵈고, 귀한 사역에 감동하여 자서전 출판의 영광까지 얻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요!! 이렇게 인생 후반전을 정리하시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하시는 과정을 몸소 가르쳐주시니 감동입니다. 저도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이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정신 오빠가 먼저 하늘나라로 이사했습니다.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같지않다는 사례를 보여준 셈이지요. 70 에 갔으니, 이제 저도 오빠의 나이가 다 되어서 마음이 조금?해집니다. 저는 경북 문경이란 곳으로 귀촌했습니다. 집을 짓긴 하는데...이 게스트룸에 Jean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꿀 수 없어서 마음이 아립니다. 누군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둡니다. 저도 얼마나 여기 머물 수 있을 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마음입니다.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만 총총 줄입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동행 출판사 대표 에스더 올림.

Future Contact information for “Hope in Color Purple Fund”

Jean Kim’s son, Samuel Kim.

Mailing address: 15228 72nd Dr. SE. Snohomish, WA. 98296. **Tel:** (425) 789-8290.

Please call him in the evening. BOEING has meetings every day and he will not be able to answer the phone during the day. **Email:** golf64dragon@gmail.com.

For any special contribution, make a check payable to “Hope in Color Purple Fund” and mail it to the above address.

THERE IS A LIFE IN MY APARTMENT.

I am on the third floor but lots of trees are visible as if I am on the ground floor.

The windowsill is my garden where I raise orchids, African violets, and other flowers and plants.

So, I say, there is a vibrant life in my studio apartment which is large or small enough to accommodate my life while I linger my feet in this world yet.



나의 마지막 책 “보랏빛사람들”을 끝내면서

나가는 말

여러 동역자들과 친지들이 처음 초안을 읽고 추천하는 글을 써 주신 다음에 내가 재차 읽어보니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그대로 출판하기엔 너무 허술하여 LA의 한상운 전도사에게 맡겨 영문 본 『Jubilee Handbook』에서 제 1 장부터 제 3 장을 번역해 넣어서 많이 보강이 되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게는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저자인 내 손으로 다시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내게는 이 작업이 너무 힘들었다. 폐협심증이 더 심해져서 산소호흡기 없이 숨쉬기도 힘들고 에너지가 소진하여 많이 누워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작업은 내게 목숨을 걸고 하는 작업이나 다름없었다. 숨이 가빠 혈떡이며 사순절 기간 내내 나는 거의 혹은 완전히 소진된 에너지를 계속 끌어다가 매일 조금씩 저자로서의 최종수정을 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괴로운 순간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에 마지막 ‘나가는 말’을 쓰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완전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너무 감사한다. 또한 감사한 것은, 몸은 마지막 온스의 에너지까지 소진 되는 듯하여 워커(Walker)의 도움 없이는 어지럼증이 심해 걷기도 힘들지만 두뇌는 여전히 잘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말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갑자기 죽을 수 있으면 고통을 오래 겪지 않아 감사하고, 그 반대로 오래 끌게 되면 준비기간을 넉넉히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후자가 나의 경우이다. 나는 5 살 때부터 앓는 만성기관지염과 위산 역류증으로 결국 폐를 태우고 말려서 폐협심증이란 불치의병으로 발전했다. 이도 5 년 이상 되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더 힘들어진다. 지난 수년간 건강에 위기가 올 때마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주시곤 했다. “왜 또 살려놓으셨느냐”고 여쭙면 못 다한 일을 끝내보라고 하시는 듯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후배들이 사용하겠지 싶어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던 많은 미완성 글들을 꺼내 다듬기 시작했다. 그런 작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다. 내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매일 조금씩 해보았다. 끝내면 좋고 못 끝내면 그대로 놓고 가리라는 심정이었다.

한글 자서전 『보랏빛희망』은 서울에서 2015년에 출판되었지만 2018년 여름부터 노인생활지원시설(양로원)은 아니고 각자 자신의 아파트에 살며 식사, 빨래, 청소 등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살면서 2020년 봄까지 2년간 책 4권을 마무리하여 출판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줄필이지만 다섯권의 책이 나오게 되었다. 나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자서전 외에 다른 책 4권은 영어로 써서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교포들을 위해 한글로 하나 쓰는 것을 소원했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영문 본에서 좀 빌려오고 거기에 없는 것까지 좀 보태서 책 한권이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는 에너지도 모자라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처럼 혈떡이며 숨이 가빠 많이 힘이 들었다.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니 나를 등에 업고 그 높은 언덕을 나와 함께 올라가 주신 우리 주님이 계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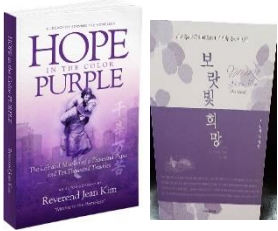
그리고 이 한글판 『보랏빛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쓰는 저작의 마지막이라고 안도감과 서운함이 함께 오가는 심정이다. 정말 마지막 책이라고...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글을 쓰셨을 때는 부록에 설교 23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나는 14편으로 줄였다. 또한 실례에 반복이 많다. 이는 이 설교들이 미국과 한국의 여러 다른 교회에서 한 것이므로 설교 대상 교회에는 반복이 전혀 없고, 다른 책과도 중복되지 않지만 반복되는 예화에는 독자들이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도 글이라고 내놓았는가 한다면 마지막 온스의 에너지까지 모두 끌어다가 목숨을 걸고 썼으니 좀 봐달라고 핑계를 대고 싶어진다. 그러나 진심으로 독자들의 양해와 용서를 빌고싶다. 그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내 주위에 함께 있어준 내 가족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친구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독자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어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나가는 말을 마감할까한다.

내가 출판한 책 (줄필) 13 권중에 현재까지 건재해있는 6 권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책판매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은 홈리스사역을 계속 후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 후에 우리 아들 Samuel Kim 이 인계맡아서 Hope in Color Purple Fund 를 운영할 것이므로 여러분들의 홍보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책을 소개합니다.

Of the 13 books I wrote, the more recent 6 books are which I introduce to you. The entire proceeds and special contributions will support homeless missions that strive to end homelessness. After I am gone, my son Samuel will manage the Hope in Color Purple Fund. He will need help with your publicity, please spread the word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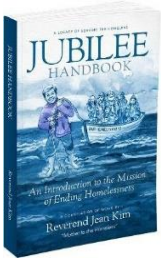
us! See next page. These 6 books are sold by amazon.com.

INTRODUCTION to **6**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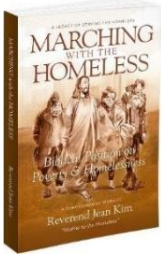


The Hope in the Color Purple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ousand Pains and Ten Thousand Troubles) is an autobiography of Rev. Dr. Jean Kim who was born to a wealthy family with an abusive father in North Korea in 1935 in the era of Japanese occupation and WW11. Age 11 she experienced a brutal communist regime, poverty, hunger, political threat in North Korea, refugee life, war, homelessness, and loss of a family member in South Korea. In her immigrant life to the U.S since 1970, her grave devastation was the death of her teenaged son. Her story is God's and Jesus' story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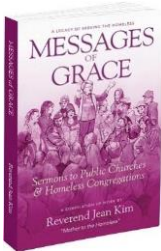
picked her up from the valley of dead bones to a new life; they carried her on their backs to serve the poor and homeless in the United States for a half century. This devastating and yet hope-filled story can be a reference to the Women's Department in colleges as well as hope to many women of the world experiencing thousand pains and ten thousand trou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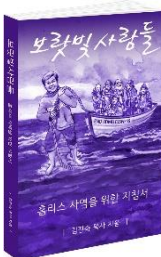
Jubilee Handbook is an Introduction to the Mission of Ending Homelessness. This book is born out of Jean Kim's own experience in serving the poor and homeless for a half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She combs through the disturbing 35 realities and root causes of poverty and homelessness in the U.S. She introduces the consequence of economic disparity to the longevity and well-being of the rich and the poor. She compares our way and the European way of dealing with poverty. For solutions, she presents emergency interventions and creation of our political will and policies to achieve holistic democracy in political and economic justice lest we face the eruption of this poverty volcano. With some mission samples this book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professors and students in sociology, economics, and social work as well as policy makers who care to develop a socio-political view and construct more relevant public policies for all people.



Marching with the Homeless is about the whole Biblical Position on the Poor/Homeless. Being challenged and encouraged from her early teen years as to what Jesus had done with the poor in his days, she matured in Christian faith to serve the poor/homeless for half a century. She walks through the whole Bible deeply and widely and discloses the heart of God and Jesus who care so deeply about the poor/homeless. She even goes down to St. Paul, St. James, and the first century church to bring to light many hidden and rarely spoken truths about the poor/homeless. This book can be the most eye-opening Biblical reference to know what God and Jesus require of us to do for the poor/homeless in our own backyard. It can be a good reference for theology professors and students in seminaries and preacher's reference for their sermons and Bible study guide.



Message of Grace is a book of sermons and keynotes Reverend Jean Kim spoke to churches throughout the nation and homeless congregations, mostly in Seattle, WA. Jean Kim's motivation to preach such sermons came from her experience in encountering most discouraged, hopeless, lost, poor/homeless people on the streets. She tries to preach a challenging sermon to the public church to awaken their complacent conscience and help transform their country club church to wide-open, fearlessly welcoming Jesus' church. She also preaches to the homeless congregations to motivate them to get up and walk in faith and become permanently free from poverty and hopelessness. She brings homeless friends closer to Jesus so that they can meet each other and the homeless may find hope in Jesus to get up and walk. This book can be a reference for preachers and homiletic students for their relevant sermons to the public and homeless people in our time.



보랏빛사람들 (People in Purple): Guides to Homeless Missions. 1935년에 태어난 나의 육신이 전쟁과 피난, 가난과 온갖 병고에 시달리며 파란만장한 천신만고의 85년을 살았다. 이제 나의 에너지도 다 한듯하여 금년(2020년)에 서둘러서 책 3권을 영어로 출판하였으나 한인사회에는 한글로 쓴 책을 출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 바빴다. 그러던 중 수년 전에 기고했던 짧은글 70여편과, 이 나라의 빈곤과 홈리스 실태와 근본원인에 대한 나의 정의와, 그동안 제공했던 강의와 설교를 바탕으로 『보랏빛사람들』을 한글로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현세대와 빈곤/홈리스를 생산해내는 사회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코로나 19가 우리네 삶을 침범하여 생명을 앗아가고, 사업들을 줄줄이 파산케 하고, 가난과 홈리스를 더 생산해내는 이때에 우리의 사회상을 돌아보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다. 대개의 사람들이 그들이 게을러서 홈리스가 되었다고 일축해버리지만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보랏빛사람들』을 통해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홈리스 상황을 다양한 모양으로 정의함으로써 홈리스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형편이 아니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한다. 『보랏빛사람들』은 설교자에게나, 학문을 하는 학생이나, 성경공부자료로서, 또한 홈리스 사역개발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마지않는다.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주위의 많은 홈리스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 싶은 열망이 일기를 바란다.

These **6** books are sold by [amazon.com](https://www.amazon.com).